

# 광주 이색 먹거리 관광객을 부른다

### 백열등 망고주스·인형 솜사탕 등 아이디어 음식 눈길

### 송정시장 상가마다 긴 줄...입소문에 외지인 발길도

“솜 사탕인가요? 인형인가요?”  
 22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송정로 우체국 앞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조그만 수레에 오리와 곰인형을 빼놓은 달디단 솜사탕이 진열돼 행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신기해하면서 길게 줄을 섰다. 설탕이 녹아 실처럼 떠다니는 유리 상자 안에 주인이 나무 막대를 넣어 이리저리 움직이면 서 색을 입혀 오리와 곰 모양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인들은 즐거워 했다.  
 비슷한 시간, 솜사탕을 파는 곳에서 5분여 떨어진 다른 곳에서도 길게 줄을 섰 행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손에는 외인 잔이 하나씩 있었다. 이곳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외인잔에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이 담겨 있다. 티라미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디저트인데 이 상점에서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이색 외인잔에 담아 팔고 있다. 또 이곳에서는 망고 주스를 백열전구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어 소비

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여름철 대표 음료인 망고를 파는 곳은 많지만 이 매장에서는 백열전구 모형의 용기에 담아주는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송정로 일대에서는 외인잔을 들고 걷거나 노란 망고가 담긴 백열전구를 들고 있는 행인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광주지역 곳곳에서 젊은 상인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먹거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이색 음식은 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들 상인들의 아이디어 음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가장 성공한 공간으로 손꼽히는 송정시장의 경우에도 젊은 상인들이 내놓은 이색 음식이 한몫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꼬치구이, 호떡, 초코파이, 어묵, 각국의 라면, 하우스 맥주 등 젊은



백열등 망고 주스



외인잔에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상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이색 음식이 판매하고 있다. 이미 맛을 검증받아 매일 대부분 상가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고, SNS등을 통해 전국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또 첨단지구의 한 술집에서는 화덕에 구운 고등어를 일본식 우동에 넣어 독특한 맛의 국물을 내는 ‘어우동’을 판매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색 먹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효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납작 만두와 초코파이 등 대표 먹거리를 앞세워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씨앗 호떡 등으로 유명한 부산 국제시장처럼 광주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한 요식업체 관계자는 “관광의 요소 중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명 관광지와 독특한 음식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광주 곳곳에서 젊은 상인들이 이색 음식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구도심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中企 중심체제 전환...창의정신 꽃 피워야”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동반성장 포럼

“현재와 같은 저성장시대가 장기화할수록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락)는 중소기업주간인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대·중기 동반성장포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연자로 나선 초대 동반성장포럼 위원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이라는 강연을 통해 동반성장의 학

술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진 수 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가 개입이 동반성장 정책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조속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인의 창의정신과 기업이 정신이 꽃 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성수 현 동반성장포럼 위원장에 이어 정용기 전남대 교수(한국산학협력동연구원장)가 제2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대성기자bigkim@

## 광주·전남 무역수지 불황형 흑자 여전

### 4월 수출 1년새 14.6%·수입 26.2% 감소

광주와 전남지역 4월 중 무역수지는 수출이 감소했으나 수입 감소 폭이 더 커 56억6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6% 감소한 34억2500만 달러, 수입은 26.2% 감소한 19억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14억4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 수출은 12.5% 감소했지만 수입이 26.6% 감소해 무역수지는 56억69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2% 감소한 12억900만 달러, 수입은 24.9% 감소한 4억13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는 전년 동기 대비 7억96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가전제품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기계류·철강재가 증가한 반면 반도체·화공품·고무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출은 동남아, EU·중남미가 증가했으며 미국·중국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중국·EU가 증가했으나 동남아·일본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 22억1700 달러, 수입은 26.5% 감소한 15억6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5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상의-광주대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협약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20일 광주대학교 인성관에서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김갑용,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이하 GTEP 사업단)과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중국 등 광주지역 주요 무역국과의 FTA 확산으로 지역 기업

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지역 인재들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무역 관련 학술활동 및 정보 교류 ▲학생 교육 교류 ▲무역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실무진의 지원 ▲기타 무역 관련 교육 및 정보교류를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협중앙회장 선출 이사회 호선으로

### 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 각종 경제사업 권한 대폭 축소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 업무가 경제지주로 이관돼 관련 권한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중앙회와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

양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기존 중앙회가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  
 기존 중앙회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 받게 된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가 주된 목표다.  
 개정안은 경제지주에 각각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농협 내부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가족간 앱 연동해 위치·사진 공유

### SKT, 앱 ‘케이크’ 출시... 데이터 추가 혜택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은 22일 “최근 가족 커뮤니티 서비스 ‘케이크(cake)’를 출시하고, 가족 고객이 등록만 하면 매일 최대 1,000MB데이터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족나눔데이터’ 혜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케이크’는 고객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가족간 앱 연동을 통해 ▲가족간 위치·시간 메시지 ▲편리한 사진·일정 공유 기능 ▲생생한 가족 나들이 정보 ▲‘가족나눔데이터’ 등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가족간 소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케이크’가 가족간 소통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기능에 더해 데이터 혜택까지 제공해 스마트한 가족생활의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케이크’는 지정된 시간이나 장소로 메시지를 보내는 ‘위치 및 시간 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중요한 가족 메시

로또복권 (제703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10	28 31 33 41 44	2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235,784,100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2,872,290	51
3	5개 숫자일치	1,568,637	1,719
4	4개 숫자일치	50,000	84,194
5	3개 숫자일치	5,000	1,416,580

## 모집

###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